

나만의 시선으로 만드는 다양한 도시 풍경

●ACC‘도시 기록자의 모임’ 워크숍
30·7월1일B4 특별열람실

도시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혼재돼 있고, 공간과 장소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이동하고 교차하며 다양한 요소들을 공존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카메라와 연필, 노트 등 도시 기록자의 물건을 들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색다르게 바라보고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틀 동안 ACC B4 특별열람실에서 ‘도시 기록자의 모임’ 워크숍이 열린다. (ACC재단 제공)

조대연 교수, 이정민 디렉터 ‘도시문화’ 주제 강연 카메라·연필·노트 등 문화상품 활용한 현장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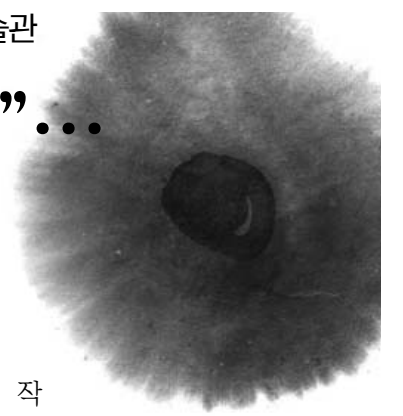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틀 동안 B4 특별열람실에서 ‘도시 기록자의 모임: 도시 기록자의 물건으로 광주 읽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시 기록자의 모임’은 2023년 ACC 창제작 콘텐츠의 핵심 주제인 ‘도시문화’에 맞춰 도시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고찰해보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이다. ACC는 ‘예술’로 이어지는 ‘도시문화’에 주목해 이를 창조적 활동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워크숍 첫째 날은 조대연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의 ‘도시를 바라보다, 기록하다, 의미를 발견하다’ 강연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이정민 서울수집 디렉터의 ‘어쩌다, 서울수집’ 강연에 이어 도시기록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ACC재단이 2023 ACC 콘서트 ‘걷기, 해매기’ 전시 연계 문화상품으로 개발한 ‘도시 기록자의 물건’을 활용해 도시 기록에 나선다. ‘도시 기록자의 물건’은 일회용 필름 카메라, 기록지, 봉투, 연필, 마스크 테이프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실습에서는 광주 동구 공동, 동명동, 서남동, 서석동, 장동 등 ACC 인근 마을을 걸어다니며 일상과 다른 모습의 도시를 관찰하고 기록한 뒤 각자가 발견한 모습을 다른 이와 공유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지금은 쓰임새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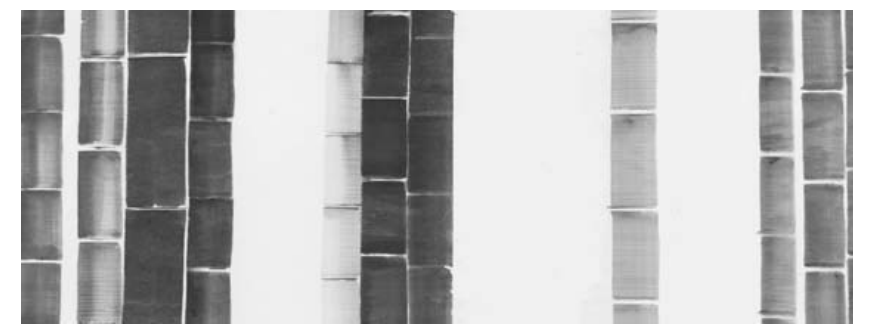
졌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축물이나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중첩돼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요소들을 찾아보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 관찰과 기록이라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인식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 이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집·기록한 사진과 글 등은 향후 ACC 문화상품점에서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지역에 자생적인 도시기록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도시 기록자의 물건’ 시리즈 상품 개발과 워크숍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기록자 모임은 20여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8천원이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김호석 작가 특강...오늘 시립미술관 “검은 먹, 한 점”...



수묵화의 재료 ‘전통 한지’의 중요성과 특징을 조명해볼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9일 오전 10시 세미나실에서 김호석 작가의 ‘검은 먹, 한 점’ 전시 연계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김 작가는 이날 강의에서 ‘수묵화의 재료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작가는 평소 ‘재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마추어 작가다’라는 신명으로 수묵화 재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40여년간 수묵화 재료인 전통 한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전통 한지의 원형을 찾고자 노력해온 작가는 한지 표면을 윤기나게 하고 매끄럽게 하는 처리 방법인 ‘도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표면이 거칠어 먹이 고르게 먹지 않는 한지의 단점을 전환시켜 자기만의 독자성을 구축한 것이다. /최명진 기자

작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전통 한지와 한국 수묵화 재료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들려준다. 또한 한지뿐만 아니라 붓과 먹, 벼루와 안료가 갖는 전통성을 소개하면서 자기 그림으로 천착해 온 재료에 대한 개인적 탐구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호석 작가는 정읍 출신으로 홍익대 동양학과에서 수학했으며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한국 암각화의 도상과 조형성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재학시절인 1979년에는 제2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 1980년 중앙미술대전 특선,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과 2000년 제3회 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특별 강의는 50명 선착순 예약제로 진행되며, 수강생에게는 최고의 전통한지를 증정한다. /최명진 기자



‘생태와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29-30일 변택주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일상 속 생태를 짚어보고 소외된 이웃 없는 행복한 세상을 모색해보는 강좌가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은 29-30일 오전 10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에서 변택주(사진)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생태와 평화 어디서 오는가?’를 진행한다. ‘이토록 다정한 기술’ 저자 변택주와 함께 하는 이번 강연은 ‘마땅함’에 물음을 던지고, 기후재앙을 비롯해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최명진 기자

‘생태’를 주제로 열리는 29일 강연에서는 느리게 살수록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평화’를 주제로 하는 30일 강연은 여리고 약한 것이 수렁에 빠진 세상을 건질 수 있음을 말한다. 수강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방문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웹소설·시나리오... “광주 스토리 작가 모여라”

(사)청년문화허브, ‘호랭이 글 공방’ 참여자 모집

광주 지역 스토리 작가 발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사)청년문화허브가 오는 12월까지 ‘호랭이 글 공방’ 참여자를 수시 모집한다. ‘호랭이 글 공방’은 광주 내 스토리

작가 및 지망생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운영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토리 작가만을 위한 집필실 제공과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동안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광주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 출판,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다. 모집 대상은 웹소설·웹툰 시나리오·영화·방송 등 스토리 작가로, 만 18-39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문화허브 블로그 또는 호랭이왕국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스토리 작가 공유 집필실 ‘호랭이 글 공방’ 전경 (청년문화허브 제공)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
주요기능: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움직임스크린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움직임스크린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컴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